

문화

“전국무용제 조금 어렵지만 다양한 작품 최고”

30일까지 무료 공연

“무용 공연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어 좋네요.”

지난 21일부터 광주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19회 전국무용제를 통해 매일 무용작품을 접하고 있는 관객들의 반응이다.

전국무용제는 지역 대표들의 사활을 건 경연이다 보니 무대·조명·의상 등에서 막대한 물량을 투입, 광주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준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무대 장치와 음악 선곡, 무용수들의 뛰어난 기량은 관객들에게 ‘보는 재미’를 제대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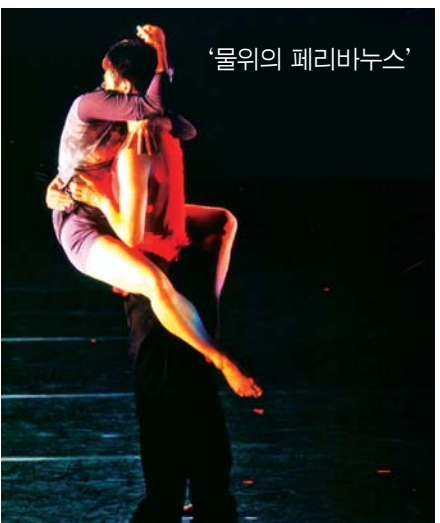
무용 관객의 저변이 넓지 않은 터라 객석 대부분을 중·고생들이 채우고 있기는 하지만 공연장을 찾은 성인 관객들과 무용 전공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24일 공연된 김보라 무용단(충남)의 ‘인더 비기닝’은 독특한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무용수들이 관객을 압도했고, 디지털 영상을 활용한 김태훈무용단과 광주 대표 김미숙뿌리무용단의 공연도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팀들의 공연이 남아 있다. 26일에는 김주성 이태아댄스컴퍼니(인천)의 ‘복련의 도시’와 한스모어댄스컴퍼니(대전)의 ‘끝없는 여행’이 공연되며 27일에는 정길무용단(대구)의 ‘민화’와 제주오름민속무용단의 ‘천명’이 관객들을 만난다. 또 28일에는 레티나댄스시어터(충북)의 ‘더 매드’와 장미영현대무용단(전남)의 ‘하얀 파도’가 대기중이며 경연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정숙희 무용단(경북)의 ‘미투리’와 이영순무용단(경기)의 ‘인연’이 공연된다.

30일 열리는 폐회식에서는 광주시립무용단의 ‘백조의 호수’ 2막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현장에서 무료로 티켓을 구할 수 있으나, 꼭 관망해 볼 것. 문의 062-564-26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물위의 페리버누스’

지난 24일 광주시내 한 연습장에서 100회 기념작 ‘철종 13년의 세익스피어’를 연습중인 조대극회 동문들의 열기가 뜨겁다.



연극 불모지 광주에 꽃 피운 ‘조대극회’ 100번째 공연

“그들의 연극은 계속된다”

1948년 창단... 정철·박윤모 등 배출

내달 17~18일 ‘... 세익스피어’ 무대에

배우 이한위 등 선·후배 60여명 참여

#장면 1=1948년 9월 광주 동방극장(현 무등시내마) 조선평화고 극예술연구회(이하 조대극회)는 함세덕 작 ‘무의도 기행’을 무대에 올렸다. 같은 해 조선대 문학부 학생들을 주축으로 극회를 만든 후 첫번째 올리는 작품이었다. 극회 멤버 한상운이 조연출로 참여했고, 조수원이 주연을 맡았다.

#장면 2=2010년 10월 24일 광주 베니스웨딩홀. ‘철종 13년의 세익스피어’ 연습이 한창이었다. 이 작품은 조대극회 100번째 정기 공연작. 조연출 김지훈(85학번)씨 지도 아래 30여명의 출연진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대극회가 오는 11월 17일~18일(5·18기념문화센터) 100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48년 창단 후 무려 62년 세월의 흔적이 새겨놓은 금자탑이다.

조대극회는 연극 불모지 광주에 ‘씨’를 뿌렸다. 1952년에는 ‘귀족도’를 광주는 물론이고 목포·군산 등에서도 공연했다. 1955년 이후 공백기를 가졌던 조대극회는 한

옥근(현 조선대 교수) 씨 등이 참여하면서 다시 기지개를 쳤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조대극회는 10년에 한차례씩 선후배가 함께 공연을 제작해왔다. 지금까지 ‘헐릿’, ‘날 보러와요’ 등을 선보였고 지난 2001년 80회 정기공연 ‘한 여름밤의 꿈’은 조대극회 산하인인 지도교수 조우현씨의 장년퇴임을 기념하는 뜻깊은 무대였다.

조대극회는 많은 연극인들을 배출했다. 탤런트 이한위(80학번)씨를 비롯해 동시대 교수 정철(71학번), ‘아버지’를 공연하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윤모(72학번), 극단 미추를 거쳐 광주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강대홍(87학번)씨 등이 대표적이다.

‘철종 13년의 세익스피어’는 이노우에 히사시의 작품을 배산작이 각색한 것으로 ‘리어왕’ 등 세익스피어의 37개 작품의 중요 요소를 통해 ‘삶에 대한 욕망과 좌절’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광주 초연인 이 작품은 공연 시간이 무려 3시간(인터미션 포함)에 이르는 대작으로 연기자·스텝이 60여명에 달한다. 마추 삼일연출 신승수(85학번)씨가 연출을 맡고 신덕호(87학번·연우무대), 조영철·이한위·박윤모·정일공·고희정·강중원·정일권씨 등 72학년부터 2010학번 새내기까지 함께 무대에 오른다.

100회 공연은 지난해부터 기획했다. 열정은 뜨거웠지만, 학교 지원도 없는데다 스폰서 잡기도 어려워 소규모로 공연할까 고민했지만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연을 보여주자는 생각, 무엇보다 ‘100회 공연’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일을 저질렀다.

이번 작품의 제작비는 1억원이 넘는다. 밥값만 해도 500만원이 넘고, 학교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시내에 연습실도 마련했다. 비용은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았다. 직장인이 많고 각지에 흩어져 있다보니 연습시간을 맞추는 것도 힘들다. 평일에는 오후7시부터 연습을 시작해 밤 12시를 넘기게 일하고, 토·일요일은 연습에 ‘몰인’한다.

“사는 게 바쁘긴 하지만 연극하면서 느꼈던 그 때의 열정을 늘 잊을 수가 없었죠. 동문 모임을 하기는 하는데 ‘함께’ 무대에 선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부대끼며 만들 어간 추억은 없었어요. 연습을 통해 선후배간의 정도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네요.”

총기획을 맡은 강영운(81학번)씨는 밤 “12시 까지 연습한 후 출근하는 게 고역이지만 다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연극의 싹을 틔웠고, 무성함 그늘을 드리웠던 ‘조대극회’, 그들의 연극은 끝나지 않는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10-5612-000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눈부신 결실’ 사과가 화폭에 가득



‘생명-결실’

28일~11월 3일 ‘박병우 개인전’

‘사과’라고 발음하면 금방이라도 입 안이 상큼해 질 것 같은 가을, 과수원의 정겨움을 옮겨 놓은 듯한 전시회가 열린다. 28일~11월3일 광주 대동갤러리 ‘박병우 개인전’.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햇빛을 머금은 사과를 선명하게 형상화한 신작을 선보인다.

봄에 익은 사과와 나뭇잎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고, 사과의 표면에 어리는 빛의 강약이 사실적으로 묘사됐다. 정교한 표현은 한 입 베어물면 과즙이 흘러 나올 듯 생생한 느낌을 준다. 또 강렬한 붉은 빛은 자연의 생동감을 전해준다.

조선대 미술대학 출신으로 서울, 광주를 오가며 16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지난 1월 서울 스타갤러리에서의 개인전과 한국국제아트페어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무등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0주년 기념 ‘한마당 축제’

30일 북구일곡도서관

광주 북구일곡도서관(관장 황은주)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오후 3시 일곡제1근린공원 일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한마당 축제에는 도서관 동아리팀 발표, 가수 공연, 매직쇼 등이 펼쳐지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행사도 마련됐다.

또한 오후 1시부터는 식전 행사로 초등학생 대상 ‘도서관 풍경그리기 대회’와 중학생 대상 ‘독서 O.X퀴즈대회’가 열리며 부대행사로 ‘도서기증, 도서알뜰교환전’ ‘동화 속 주인공과 사진찍기’ 등도 준비했다. 광주 북구일곡도서관은 2000년 9월 개관해 현재까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400명, 총 이용자 4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의 062-510-1631~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산강 유역서 나무기둥 세워 만든 6세기 石室 확인

영산강 유역에 나무 기둥을 세워 돌무덤방인 석실(石室)을 만든 6세기 무렵 삼국시대 대형 고분이 확인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연용)는 영암군 시종면 옥아리 방대형(方臺形)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남북 29.98m, 동서 26.30m 규모인 하나의 봉분 안에서 앞트기식 돌방무덤(橫式石室墓), 구멍식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

돌널무덤(瓮棺묘), 널무덤(목관묘) 등 다양한 매장 시설이 확인됐다고 25일 말했다.

방대형 고분이란 공중에서 내려다본 봉분 형태가 방형인데다, 그 모양이 마치 단을 쌓아올린 듯하다 해서 부르는 묘제(墓制) 양식 중 하나이며, 봉분 하나에 시기와 모양을 달리하는 매장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벌집형 고분’

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번 조사 결과 봉분 중앙에서 발견된 앞트기식 돌방무덤은 돌을 쌓아 만든 무덤방이 장축 3m, 단축 1.1m 정도의 세장방형(細長方形, 긴네모꼴)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4개 나무기둥(木柱)을 세워 석실 벽을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구소는 소개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영암 시종면 일대에는 4세기 무렵 웅관고분이 밀집 분포해 초기 웅관 고분 사회의 중심세력이었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6세기 전후한 시점에도 상당한 중심세력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남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Taiwan, Shanghai, and South Korea. Includes contact info 062-224-0022 and various travel services.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 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필수경비 포함 : 여행자보험(해외1억/국내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원비용, 선택경비 :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일일표에 명시), 개별적인 및 비비용 별도 *서울시 중구 공평동 1번지(주) 하나투어 *입원여행업 등록 377(서울) *관광플랜싱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5억 보증보험 가입(보안기간 :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최소 출발인원 : 10명 *숙소 : 2급 호텔 이상 *교통편 : 항공/버스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09년는 오동변동임)